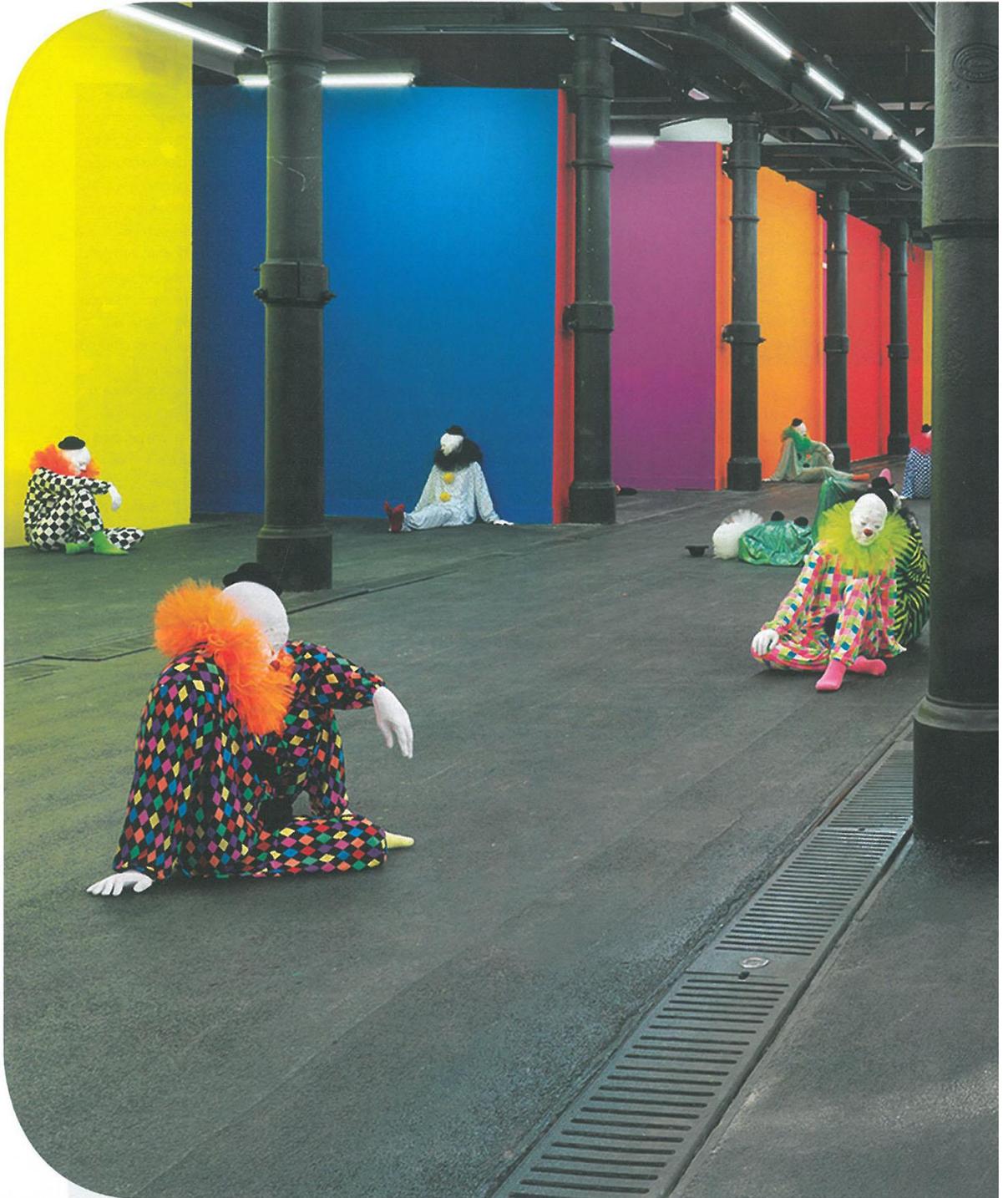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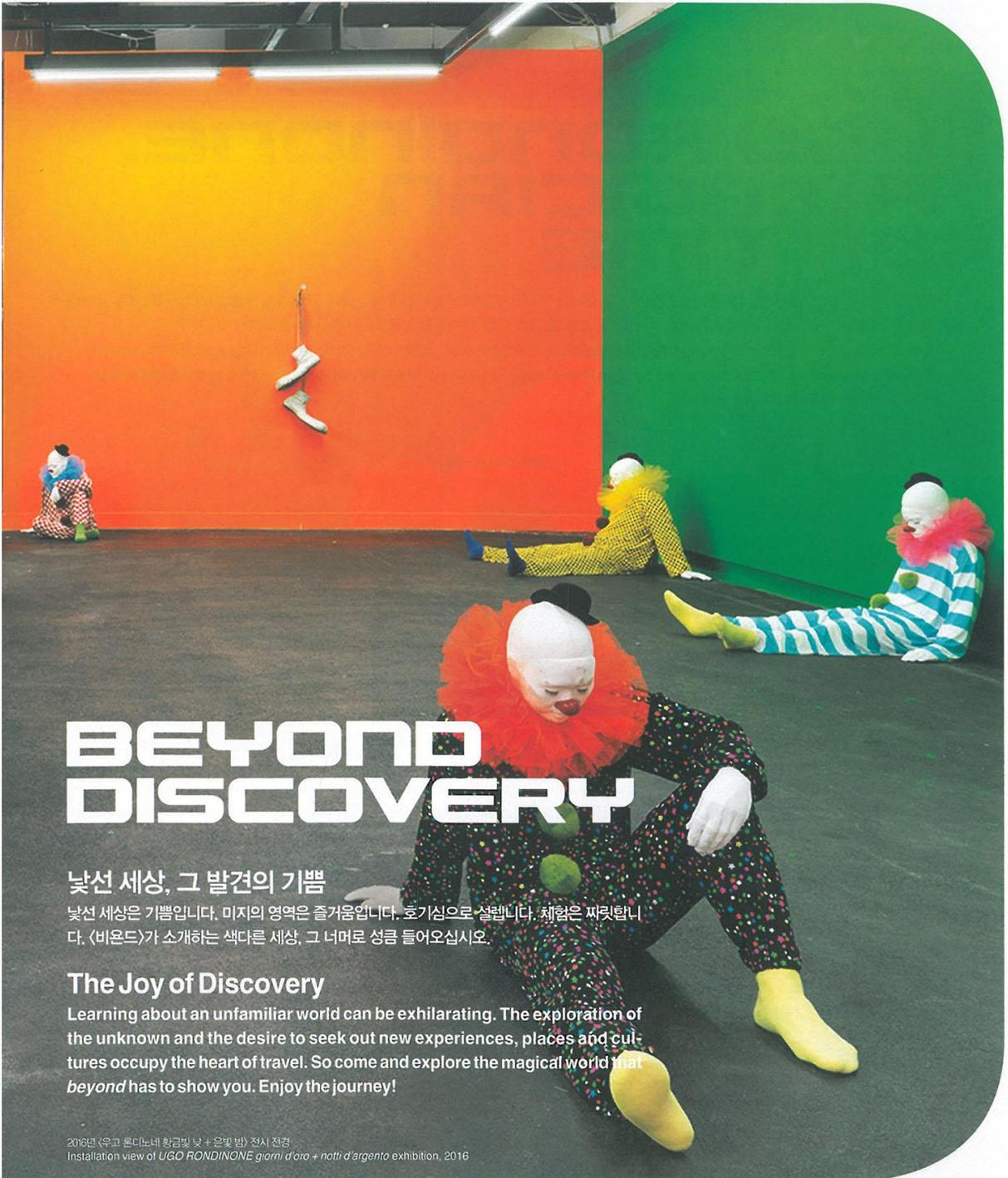


# UGO RONDINONE, A MAGICIAN OF TIME

October , 2016 | Tak Young-jun

page 1 of 6





# BEYOND DISCOVERY

## 낯선 세상, 그 발견의 기쁨

낯선 세상은 기쁨입니다. 미지의 영역은 즐거움입니다. 호기심으로 설렙니다. 체험은 짜릿합니다. <비욘드>가 소개하는 색다른 세상, 그 너머로 성큼 들어오십시오.

## The Joy of Discovery

Learning about an unfamiliar world can be exhilarating. The exploration of the unknown and the desire to seek out new experiences, places and cultures occupy the heart of travel. So come and explore the magical world that *beyond* has to show you. Enjoy the journey!

2016년 <우고 론디노네 황금빛 낮 + 은빛 밤> 전시 전경  
Installation view of UGO RONDINONE *giorni d'oro + notti d'argento* exhibition, 2016

## ZOOM IN

시간의 마술사, 우고 론디노네

UGO RONDINONE,  
A MAGICIAN  
OF TIME

시간의 더께가 쌓인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건물 외벽에 무지개 빛깔의 네온사인이 내걸렸다.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에 초대된 스위스 출신의 작가 우고 론디노네의 작품이다. 그는 '희망의 상징' 무지개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일까?

**A rainbow-colored neon sign stands tall outside of the Seoul Museum of Art's time-worn facade. Emblazoned with a bold statement, it was created by Ugo Rondinone, a Swiss-born artist who was invited to the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6.**

by 탁영준 Tak Young-jun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때문에 걸린 무지개 간판에는 'DOG DAYS ARE OVER'라고 적혀 있다. 영어로 'dog days'는 7~8월의 후텁지근한 무더위를 의미하며, 우리말로 하자면 '삼복더위'쯤 된다. 올해 8월 기상 관측 사상 최고치의 평균 기온을 기록했던 서울의 가을맞이를 환영하는 것일까? 'dog days'는 진절머리 나는 한여름뿐만 아니라 중의적으로 더는 겪고 싶지 않은 나쁜 날들을 뜻하기도 한다. 1996년에 처음 제작된 이 작품이 던지는 메시지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종말을 고한다"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 무지개가 마땅 따 있을 만큼 약할 한 더위를 가실 비가 충분히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는 이 작품이 공개된 시대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전히 분쟁과 갈등이 넘실대는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다.

**시간적 표현과** 내재된 의미가 충돌하는 아이러니는 위의 작품과 같은 제목을 가진 퍼포먼스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1996년 스위스 취리히의 미그로스 현대미술관 개인전에서, 그리고 2013년 이를 재현한 미국 뉴욕의 시티홀파크에서 론디노네는 현란한 색상의 의상을 입고 광대 보장을 한 퍼포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체로 눈을 감은 채 앉아 있거나 누워 있도록 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그의 퍼포먼스, 비디오, 조각 작품 등에 빈번히 등장하는 이 우울하고 명상적인 광대는 올해 2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보이만스판빙닝엔 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 〈고독의 어휘〉에도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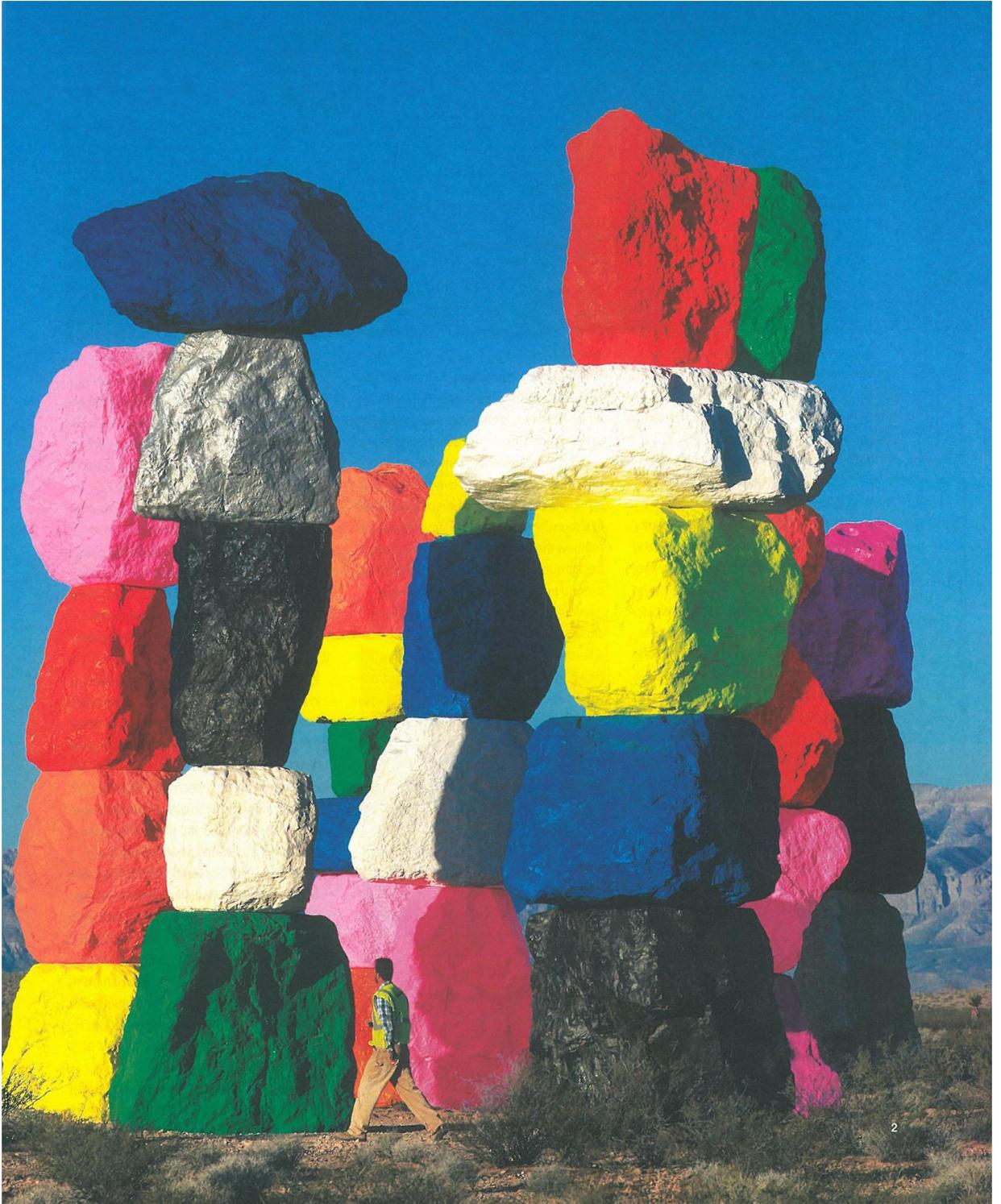


150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 공간에 흩어진 실물 크기의 45개 광대 조각은 각각 '숨쉬다' '기억하다' '느끼다' '하품하다' 등 하루 동안 우리의 일상을 채우는 행위, 감정, 관념의 이름을 갖고 있다. 블랙홀 같은 검은 바탕에 7개의 빛깔을 발산하는 커다란 무지개 네온사인 앞에 여기저기 놓인 광대들은 무지개 너머의 저 세계에서 이 세계로 빨려 들어와 우리가 한동안 잊고 살아왔던 '느림'이라는 시간의 가치를 선사하고 있다. 통상 광대가 지닌 이미지와 달리 자극이 정적이고 멜랑콜리한 론디노네의 광대는 다소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내향적 감정과 수동적 상태를 오히려 매력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그의 작품에서 감정은 핵심적인 요소다. 특히 작가는 관객이 자신의 작품에서 느끼는 우울한 감정을 '느림'이라는 속도의 개념으로 해

**D**OG DAYS ARE OVER" is the rainbow text installation at the entrance to this year's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The neon sign boldly ushers in the autumn season while recognizing the unwanted days of suffering. Incepted in 1996, this work is a statement that "proclaims an end to a period of turmoil." What is ironic is that there has not been enough rain to cool down the heat and brighten the skies with a rainbow. In other words, the era where the rainbow installation by Ugo Rondinone was unveiled to the one we live in now has been riddled with turbulence. The sign's bold expression conflicts with its inherent mea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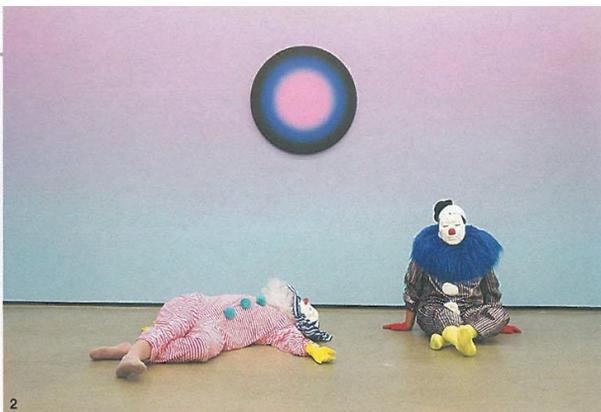
**This kind of irony** can be found in a performance piece of the same title. In it, a clown performer does nothing but sit or lie down, mostly with his eyes closed. The performance piece premiered as a solo exhibition at the Migros Museum für Gegenwartskunst in Zürich, Switzerland, in 1996 and was staged again at City Hall Park in New York in 2013. The melancholic, meditative clown has been appearing in the artist's performances, videos and sculptures since the early 1990s. Clowns also made an appearance at his *Vocabulary of Solitude* solo exhibition at the Museum

1 개 같은 날들은 끝났다, 1998 2 세븐 매직 마운틴스, 2016  
1 DOG DAYS ARE OVER, 1998 2 Seven Magic Mountains, 2016





1, 3 2016년 보이만스판빙남언 미술관 (우고 론디노네-고독의 어휘) 전시 장면 2 2014년 상하이 록본드 미술관 (우고 론디노네-숨쉬다 죽다 죽다) 전시 장면  
1, 3 Exhibition view of Ugo Rondinone - Vocabulary of Solitude at the Museum Boijmans Van Beuningen, 2016  
2 Installation view of Ugo Rondinone: BREATHE WALK DIE at Rockbund Art Museum, Shanghai, 2014



석한다.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술 고유의 '느림'이다. 막 생겨나고 있는 말과 이미지의 느림을 경험하는 것 말이다. '느림'은 어떤 존재가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느림'은 쉽게 사라지고 마는 '빠름'과 달리 우리를 재촉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신의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의 작품 전반에 깔려 있는 대조와 아이러니의 미학은 어쩌면 '다양성'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 무지개와 광대를 비롯해 전구, 창문, 벽, 새, 하늘, 나무, 돌 등 그의 작품에 흔히 사용되는 소재들은 통념적인 색상, 크기 혹은 위치와는 다른 양상으로 구현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감정 그리고 관념에 걸부된 이름, 즉 그 언어를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그 대상을 마치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이들 하나하나가 개개인에게 얼마나 다르게 다가오는지를 때론 잊고 산다. 론디노네가 설치한 무지개를 보고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넓은 벽에 펼쳐놓은 작품은, 어른보다 유연한 사고의 틀을 가진 어린이가 하나의 대상을 얼마나 다채롭게 보느냐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무지개 색깔이** 론디노네의 모든 작품에 적용된 것은 아니다. 2007년 이래로 그의 모든 전시는 돌, 찰흙, 흙, 청동, 알루미늄 등 재료 본연의 색깔을 사용해왔다. 2014년에 작가가 "이제 스펙트럼의 모든 색깔을 다시 가져올 때가 됐다"고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다른 대표작들에는 무채색이나 지극히 자연적인 색깔이 사용됐다. 지난해 2015년 9월 국제갤러리에서 선보인 청석 거인 조각 작품이 대표적이다. 이 시리즈는 2013년 미국 뉴욕의 최대 변화가인 록펠러센

ter Boijmans Van Beuningen in Rotterdam, the Netherlands, in February 2016. The 45 life-sized clown sculptures installed throughout the exhibition space are designated monikers such as "breathe," "remember," "feel" and "yawn" that describe everyday actions, emotions and ideas of a person. Scattered in a room, the clowns are in front of a large rainbow that emits seven colors on a black background. The passive clowns come from a world beyond the rainbow and deliver "slowness," a value of time. Rondinone's clowns, in their languid despondency, are different from the standard images of a clown. They magnify emotions and the passive state as focal elements. The framework of Rondinone's work is "emotion." He refers to what people regard as "melancholy" as "slowness." He explained that, "What interests me most in art is its inherent slowness, the experience of the slowness of words and images happening. I associate slowness with the possibility of being able to be. Unlike speed, which is inflammatory, slowness doesn't make demands on me." The contrast and irony in the artist's works can be understood as diverse. The sub-



jects that are frequently used in his works, such as light bulbs, windows, walls, birds and the sky, are expressed differently from their standard color, size or location. When we think of the names that are given to all objects, emotions and ideas that exist in this world, we believe that we know everything there is to know about them. However, each object has a different meaning to each individual. A work that consists of children's drawings created after seeing Rondinone's rainbow reflects great diversity in how a single object is viewed by younger visitors.

**Rainbow colors** are not featured in all of Rondinone's works. The artist said himself that his exhibitions since 2007 had adopted the natural colors of materials, and he realized that it was time to bring back all the colors of the spectrum. His major works adopted achromatic or natural colors. A leading example is the giant bluestone sculptures that were showcased at the Kukje Gallery in September 2015. This *Human Nature* series was first unveiled at the Rockefeller Center in New York in 2013. Nine human-shaped giants were created by piling slabs of bluestone from a quarry in northern Pennsylvania. The figures are named after emotions and look like they have been standing in their urban surroundings for thousands of years, disturbing the time of the space that the visitors are in. The massive stones represent a passage of time, which is the history of nature that modern people easily forget. But Rondinone is

터 앞에 〈휴먼 네이처〉라는 이름으로 처음 공개됐다. 펜실베이니아 북부의 채석장에서 가져온 청석을 흡사 고대 스톤헨지나 고인돌을 만들듯이 쌓아 올려 인간의 형상을 한 9개 조각은 각각 '슬픈' '고요한' '정적인' 등 인간의 감정 상태로 불린다.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어대는 관광객, 바빠 왕래하는 비즈니스맨이 뒤엉킨 빌딩의 정글 속에서 이미 몇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던 것 같은 청석 거인은 이를 바라보는 관객이 위치한 공간의 시간을 교란시키며 묵직한 울림을 준다.

카드란 돌덩이 하나의 무개만큼 쌓인 인간의 어깨는 오늘날 현대인이 쉬이 잊고 사는 자연의 역사다. 론디노네는 그의 가족사를 통해 이를 누구보다 깊숙이 꿰뚫고 있다. 스위스로 이주한 석공 기술자인 그의 아버지를 포함해 론디노네의 선조들은 모두 이탈리아의 약 9000년 된 동굴 주거지 사시 디 마테라에서 삶을 이어왔다. 론디노네는 20대까지만 해도 자신의 가족사를 부끄럽게 생각했지만 1997년 연인이자 시인인 존 조르노와 이 곳을 처음 방문한 이후 지금까지도 매년 여름 이탈리아 남부를 방문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을 통해 시간을 넘나드는 론디노네는 2016년 5월 실제로 흘러가는 시간과 우리가 느끼는 시간을 뒤섞는 실험을 미국 라스베이거스 남부의 사막 한가운데 펼쳐 보였다. 극소수의 생명체를 제외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꽃피우기 어려운 사막에 론디노네는 형광색으로 칠한 9미터가량 높이의 돌탑 7개를 쌓아 올렸다. 보는 방향에 따라 넓게 펼쳐지거나 열거설기 뒤엎히도록 배치된 이 돌탑 조각 작품 〈새벽 매직 마운틴스〉는 자연미와 인공미의 접점에 있다.

화려한 색상, 통념을 뒤트는 아이러니, 시간의 스펙트럼 등으로 표현된 이 '무지개 정신'은 론디노네의 작업 일체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인 '쿼어아트'에서 비롯했다. 1990년대 중후반 그의 초기 작업에서는 드랙런이나 가죽 페티시 같은 쿼어 코드가 비교적 가시적으로 두드러졌지만, 이후에는 앞서 소개한 작품들처럼 매우 중성적인 소재인 자연에 집중해왔다. 론디노네의 작품이 주목 받는 이유는 자연이라는 주제를 단색적이고 선형적인 논리에서 떼어낸 데 있다.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한 '다양성'을 그의 코드로 삼은 론디노네는 가장 시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인지하거나 알 수 없는, 감지하거나 느낄 수 없는, 경험하거나 겪을 수 없는 시간으로 가득한 자연을 프리즘 속에 통과시키고 있다.

한동안 서울 하늘에 떠 있을 론디노네의 무지개는 그 존재만으로는 수많은 갈등의 상처를 통합할 수 없다. 하지만 프리즘을 통과한 다채로운 빛깔처럼, 그의 작품을 통해 시간의 다른 영역에서 세상의 다양한 걸을 느껴볼 수 있다. 다양성의 가치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

탁영준은 아트 저널리스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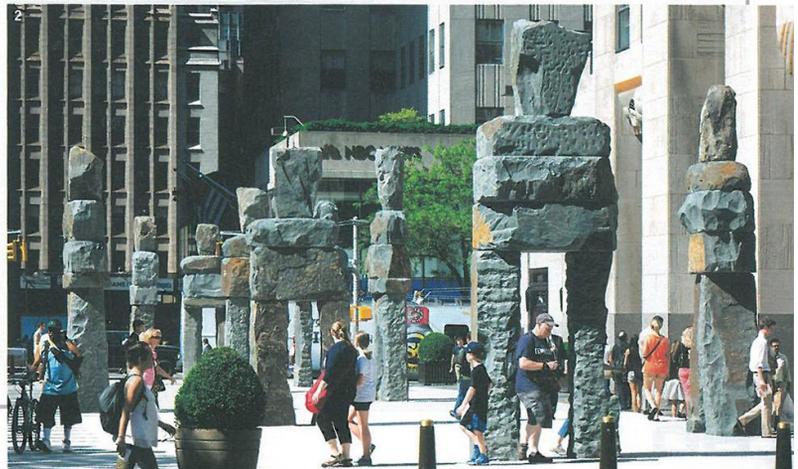
aware, thanks to his family history. Including his father, a stonemason who emigrated to Switzerland, Rondinone's ancestors earned a living in Sassi di Matera, Italy, which is home to numerous cave dwellings. Rondinone was embarrassed about his family's history in his 20s, but after visiting in 1997 for the first time with his partner, poet John Gioorno, Rondinone has been making visits to southern Italy every summer.

Rondinone conducted an experiment in May 2016 in the middle of a desert in Las Vegas that shook the foundations of time and how we sense it. He erected seven shamanic stone towers, each standing about 9 meters

high. The towers look like they are spread out or entwined with one another, depending on where they are viewed. The work, named *Seven Magic Mountains*, is at an interface between natural and artificial beauty. Rondinone's "rainbow spirit" is derived from queer art, another aspect that can be found in his works. Queerness was relatively evident in the artist's initial works from the mid-to-late '90s. Later, he came to focus on the neutral subject of nature. The reason Rondinone's works garner attention is because they separate the theme of nature from monochromatic, linear logic. Rondinone also adopts diversity that derives from a difference in perspectives, and he passes nature through a prism in the most poetic and metaphorical way possible.

Rondinone's *DOG DAYS ARE OVER* rainbow, which will shine in the skies of Seoul for the time being, cannot heal the wounds of conflict with its existence alone. However, we will be able to take a step closer to understanding the value of diversity when we experience a different piece of the world in a different realm of time, just like the colors that passed through Rondinone's prism. ■

Tak Young-jun is an art journalist.



1 서머 문, 2013~2014 2 2013년 뉴욕 록펠러센터 앞에 설치한 〈휴먼 네이처〉 전경  
1 Summer moon, 2013-14 2 Installation view of *Human Nature* at the Rockefeller Center in New York, 2013